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2월 2일 주일 설교입니다.

<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

욥기 23:6-10 / 새찬송가 32 (통일 48) 만유의 주재

1.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욥23:7-9).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숨어계시든지 당신의 절대주권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사45:15).

숨어계시는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숨어계시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순금같이 단련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숨어계실 때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부정하고 무신론으로 빠지며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은 순금같이 단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어계실 때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호6:3).

이스라엘은 10~11월경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이른 비'라 부릅니다. 이 비가 내리고 2~3주 후 들판은 푸른 초장이 되며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12~2월경에 내리는 비는 겨울비로 이 비를 저장하여 건기를 대비합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4월경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이 비는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단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저주라고도 했습니다(신11:14-17).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늦어져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타나심과 응답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이때 우리 믿음이 순금같이 단련됩니다.

2. 슬픔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단련시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슬픔의 역할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슬픔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우리 속으로 집어삼킬 때 그 슬픔은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별빛처럼 아름답

게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슬픔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슬픔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우리 믿음을 순금같이 단련시켜줍니다(시 30:11).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되며 이런 슬픔이 죄로 인한 슬픔을 다 물리칩니다(시51:17).

고난도 우리 영혼과 믿음을 단련시켜 강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하지만 주를 섬기기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자청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벧전4:15,16). 주님을 섬기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딤후4:3-5). 또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막8:34). 이런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을 다 물리칩니다.

신앙의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운동의 고난이 질병의 고난을 예방하듯 신앙의 고난이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모든 신앙의 질병을 다 막아냅니다.

<적용&실천>

우리는 하나님의 숨어계심 앞에서 낙심하여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어계시지만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 과정에서 겪는 슬픔을 주님께 가져가면서 주님을 섬길 때 받는 고난을 자청하여 받읍시다.